

국방안전, 전투력을 지키는 또 하나의 무기



기고

노순미 안전공학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산업안전·건설안전·화공안전·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제도 개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방위산업 분야의 안전은 아직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방위산업 현장은 일반 산업 현장과 다르다. 실사격훈련, 탄약 및 폭발물 취급, 항공기와 함정 운용, 무기체계 시험 평가, 고에너지 물질 관리 등 고위험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에 그치지 않고 장비 손실, 임무 공백, 전력 유지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첨단 무기체계가 고도화할수록 위험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사람, 장비, 소프트웨어, 조직,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시스템의 위험으로 나타난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방산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무기 제조사업장 내 세척실에서 생긴 폭발은 방산 분야의 위험이 단순한 산업안전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전력 유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안전의 중요성은 병역자원 감소와도 맞닿아 있다. 인구절벽으로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장병 한 사람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곧 전투력이다. 숙련된 조종사, 정비사, 탄약·폭발물 취급요원, 무기체계 시험 평가 인력의 손실은 단순한 인원 손실이 아니라 전력 운용 능력의 손실이다. 안전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력 보존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안전공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전공학은 사고 이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학문이다. 위험성 평가, 시스템 안전 분석, 인간공학, 신뢰성공학, 화재·폭발공학, 안전문화, 데이터 기반 사고 예측은 국방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역량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자율무기, 지휘통제체계가 확대되는 미래 전장에서 기술 개발만큼이나 안전성 검증과 운용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

서울과학기술대 국방경영·안전공학과와 역할도 여기에 있다. 국방경영과 국방안전을 융합해 군과 방위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위험성 평가와 안전문화 정착, 무기체계 운용 안전, 방위산업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국방안전 발전의 핵심 과제다. 이제 국방안전은 산업안전의 일부가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학 분야로 발전해야 한다. 전투력의 핵심은 안전공학에서 시작된다.

국방일보

발행인 배중호 편집인 김가영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71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94-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70-85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30-42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풍피두센터 한화’의 개관

조명탄

황인 미술평론가



저 나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화양연화의 시간을 갖는다.

어수선한 빈민가였던 보부르 지역에 풍피두센터가 들어서니 그 일대가 변신했다. 현대미술을 다루는 세계적인 화랑이 몰려들어 새로운 미술생태계를 만들었다. 갤러리 세미오즈는 걸어서 3분 거리다. 서울에도 지점을 갖고 있는 갤러리 페로맹은 도보 10분 거리다.

2026년 6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옆에 ‘풍피두센터 한화’가 개관했다. 국내 미술계로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풍피두센터는 리노베이션 공사를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휴관한다. 풍피두센터는 2010년 프랑스 동부의 메스에 분관을 세웠다. 2015년엔 스페인 말라가에 해외 분관을 설립한 데 이어 이번에 풍피두센터 한국 분관이 들어선 것이다.

개관전으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이 열리고 있다.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페르낭 레제, 후안 그리스 등 교과서에서나 보던 입체파 작

가 43인의 작품 91점이 전시됐다. 파리 미술관에 직접 가서도 보기 힘든 수준 높은 대형 전시다. 이와 더불어 특별섹션 ‘코리아 포커스’에서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유영국, 박래현, 한묵 등 한국작가 11인의 작품 23점을 전시했다. ‘풍피두센터 한화’라는 미래지향적 공간과 입체파 작가들에게 스며든 한국작가들의 작품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광휘를 발휘하며 새로운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공간이 달라지면 작품도 달라진다는 진귀한 경험이었다. 2030년까지 풍피두센터 한화에서 개최될 전시 주제와 작가는 예정돼 있다.

여의도는 정치와 금융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TV 방송사가 집중된 시기도 있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모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여의도에 몇몇 갤러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철수했다. 당분간 여의도는 풍피두센터 한화의 전시로 미술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보부르 지역에 풍피두센터가 들어서자마자 그 지역의 분위기가 변신했던 것처럼 미술인의 잦은 발길과 함께 여의도의 생태계도 바뀌지 않을까 한다. 정치, 금융은 경쟁의 장르다. 미술은 모두가 아름다운 꽃인 화엄의 비경쟁 장르다. 이제 여의도에 미술생태계가 더해지는 날만 남았다.

군 생활의 시작, 작명 5개항에 능통하라

국방광장

서일권 대령
육군보병학교장



를 모두 담고 있으며, 임무형 지휘를 구현하고 공통의 전술관을 형성하는 전투지휘의 기본 틀이다. 작명 5개항의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육군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를 보장한다. 현대전은 예측이 어렵고, 템포 또한 매우 빠르다. 상급지휘관이 모든 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 예하 지휘자는 작명 제3항 ‘실시’에 담긴 작전 목적과 최종상태를 바탕으로 우발상황에서 상급부대 작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창의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결국 임무형 지휘의 핵심은 세부 통제가 아니라 의도의 공유이며, 작명 5개항은 이러한 임무형 지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도구다.

둘째, 공통의 전술관을 형성하고 군인만의 전문언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동일한 형식과 절차 속에서 지휘자(관)과 부하가 함께 훈련하면 사고체계와 전투 수행방식이 자연스럽게 통일된다. 이는 “상급지휘관은 무엇을 의도하는가” “우리 부대는 어떻게 행

동해야 하는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결국 공통의 전술관은 부대 전투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기반이 된다. 또한 전장에서 짧고 명확한 의사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명령은 간결해지고 이해는 빨라진다. 결국 작전명령의 숙달은 단순 문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지휘자와 부하 간 신속·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셋째, 소대장의 자신 있는 전투지휘를 보장한다.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지휘의 틀이 잡혀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예측불가능한 현대전에서도 작명 5개항을 기준으로 사고하면 침착한 판단과 명확한 지시가 가능하다. 또한 용사들은 우왕좌왕하거나 지시가 바뀌는 지휘자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지휘자를 더 신뢰한다. 따라서 작전명령 하달 능력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부하에게 존경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임장교 시절은 지휘관으로서 기본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다. 남은 학교 교육과 야전생활 속에서 작명 5개항을 끊임없이 연마해 능통하길 바란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지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부대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